

당정, 고용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

세법 개정안 협의...일자리 창출 기업, 서민·중산층 지원 초점 고용증대 세제 신설·영세자영업자 한시 체납세금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

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협의했다. 당장 영세음식업자들 부가가치세 외제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역시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소득 종합과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해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과세표준(과표)기준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세율을 25%로 현행보다 3%포인트를 인상하는 법인세 인상안 그리고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

득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소득세 인상안 등을 마련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법 개정안에 자본소득 과세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은 의원은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세금을 정상화해서 그 재정으로 중소기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밀하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지도부 등 의원들이 27일 광주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청 복원 광주시민 뜻 따를 것”

이혜훈 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 5·18 묘역 참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7일 광주를 찾자 “진보·보수를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은 과감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이날 처음으로 광주를 공식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민께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추경을 처리하고 국회에 쉬는 기간에 전국을 돌며 ‘바른정당 주인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첫 시작을 5·18 묘지 참배부터 하면서 호남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앞장서려고 마음먹고 뛰고 있다”고 밝혔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신는 데 대해서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0년간이나 헌법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부마항쟁이라든지 대한민국 민주역사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함께 광주를 찾은 유승민 의원은 “옛 전남도청 복원과 진상규명도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듣고 있으며 관련 내년 예산도 잘 챙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한국전쟁이나 호국이라는 점에서 생각이 같다고 본다”며 “호국과 민주화는 함께 가는 것이고 세월호와 천안함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이 자유한국당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광주 방문에는 정운천·김영우 최고위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했다. 28일에는 담양 그리고 세월호 현장인 목포신항, 순천시 등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바른정당 주인찾기 캠페인 이어간다. /오광록기자 kroh@



“일자리 창출 함께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수제 맥주로 분위기 ‘훈훈’

문대통령 靑서 기업인 호프미팅...리얼미터 국정지지도 74.7%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과 생맥주를 결집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과 기업인 만남의 공식 명칭은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으로 정해졌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경내 상춘재 앞마당에서 생맥주 350ml를 건배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드레스 코드는 넥타이 없는 캐주얼 비즈니스 복장이었다.

청와대는 애초 차담회로 진행하려 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호프타임’ 아이디어를 내어 형식이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단합을 다진 경험이 있다.

호프미팅을 위해 청와대는 상춘재에 생맥주 부스를 설치했고 맥주는 소상공인 수

제 맥주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건배 제의를 한 뒤 야외에서 선 채로 20분간 환담을 나눴으며, 곧바로 상춘재로 이동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 기업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간의 내림세를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7일 공개한 7월 4주차 주중 집계(24일~26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 2.3%포인트 올라 74.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6%포인트 내린 18.7%를 기록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따른 지지층 결집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주 “제보조작 오해 소명”

8시간 조사후 귀가...수사 마무리 수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입 특례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제보 의혹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0시11분께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해가 있었던 여러 부분들은 다 소명이 된 것 같다.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받은 소감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타던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으로,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았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추

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당시 여수에서 선거 유세 중이어서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일단 이 의원 조사를 끝으로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더 불러 그가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씨 특례제보를 10여 건 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면 그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진술을 대조·분석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민의당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당대표·최고위원 2명...“대표 경선 출마 없다”

국민의당은 27일 ‘8·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대표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11명으로 규정된 최고위원회 규모는 7명으로 줄이고, 최고위원회 선거는 당 표와 분리해 치르기로 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2명이다. 전체 일반당원의 투표로 뽑는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을 각각 최고위원을 맡기로 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 최고위원 2명, 여성·청년위원장에 더해 당대표가 최고위원 의결을 통해 지명하는 1명까지 총 7

명인 최고위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창업주’이자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연일 당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계은퇴론’과 전당대회 등판을 통한 ‘정면돌파론’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당의 판세는 물론 당의 좌표를 재설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사자인 안 전 대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측근은 “대표 경선에 출마할 일은 전 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 수사가 일단락되면 다시 대국민 입장표명과 함께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 은 희 010-6243-3704